

대구-부천, 활활 타오르는 ‘승격전쟁’

현장 리포트

챌린지 1위 안산 재창단…승격 제외
안산 제외한 최상위 팀 클래식 직행
남은 2경기서 ‘살얼음판 경쟁’ 예고

K리그 챌린지(2부리그) 대구FC와 부천FC는 19일 대구스타디움에서 격돌했다. 어느 팀도 몰려설 수 없었고, 서로를 반드시 제압해야 했다. 단순한 한 경기 가 아니었다. 올 한 해 모든 농사가 이날 한 판에 걸려있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날 맞대결에 앞서 올해 정규리그 40경기 가운데 37경기씩을 소화한 두 팀은 승점 63으로 동률을 이뤘다. 다득점과 득실차에서 앞선 대구(50골+15)가 2위, 부천(44골+14)이 3위로 그 뒤를 이었다. 안산무궁화가 승점 64로 1위

에 올라있으나, 클래식(1부리그) 승격과는 거리가 멀기에 이날 대구-부천전에 더 관심이 쏠렸다. 시민구단으로 재창단을 추진 중인 안산은 한국프로축구연맹 이사회에 결의에 따라 올 시즌 챌린지 1위를 차지해도 클래식에 올라가지 못한다. 이로써 클래식 직행 티켓은 결국 안산을 제외한 나머지 구단들 가운데 최상위 팀의 몫이 됐다.

대구는 이미 ‘큰 물’을 경험한 바 있다. 2013년 말 강등의 악몽을 겪었다. 그러나 클래식 복귀는 쉽지 않았다. “강등 2년 이내에 다시 올라가지 못하면 전체된 그 상태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 광주FC, 대전 시티즌 등 강등과 승격을 모두 경험한 팀 관계자들의 솔직한 이야기다. 강등되면 지원부터 줄고, 챌린지 규모에 딱 맞는 살림살이로 운영된다. 선수단의 대대적 변화도 피할 수 없다. 외국인선수 수급도 원활하지 않다. 고만고만한 팀들끼리 경

쟁해 ‘운 좋게’ 클래식으로 올라가도 금세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K리그의 구조다.

아니나 다를까. 대구는 강등 첫해(2014 시즌) 전체 10개 팀 중 7위에 그쳤다. 지난 시즌은 아주 뼈아팠다. 상주상무에 이어 2위로 정규리그를 마쳤다. 승점 67로 동률이었으나, 시즌 막바지 순위가 뒤바뀌었다. 결국 3위 수원FC와의 챌린지 플레이오프(PO)에서 패해 승격의 꿈을 접었다. 공교롭게도 올 시즌도 지난해와 거의 ‘닭은꼴’이다. 클래식 직행 찬스를 먼저 얻었다. 기회를 스스로 건어찬 1년 전의 아픔을 되풀이하고 싶지 않다. 기회는 왔을 때 거머쥐어야 한다는 뻔한 진리를 거스른 대가가 어떤지 잘 안다.

물론 부천이라고 열망이 덜하진 않다. 14일 프로축구연맹으로부터 전달받은 공문이 엄청난 힘을 불어넣었다. 2017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출

전등록 관련 서류였다. AFC는 K리그의 챔피언스리그 출전자격을 클래식 1~3위, FA컵 우승팀으로 규정하고 있다. FA컵 4강에 오른 부천이 우승하면 내년 챔피언스리그에 도전할 수 있다. 클럽 라이선스 규정에 맞추기 위해 코칭스태프 개편에 나선 클래식의 제주 유나이티드, 전남 드래곤즈와 마찬가지로 AFC P급 지도자 라이선스가 없는 송선호 감독을 수석코치로 내리고, 정갑석 코치에게 지휘봉을 맡기는 해프닝을 똑같이 경험했지만, 부천도 기회를 마다할 이유는 없다. 기왕이면 챌린지가 아닌 클래식의 일원으로 아시아 클럽 최고의 무대를 밟고 싶다.

축구인들은 “승격 가능성이 1%라도 있는 팀들은 끝까지 사력을 다할 것”이라면서도 “특히 동기부여라는 측면에서 볼 때 대구와 부천을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대구 | 남창현 기자 yoshike3@donga.com



K리그 ‘영플레이어상’ 주인공은 누구?

MVP 정조국으로 굳어지는 분위기
김승준·안현범 등 영플레이어 경쟁

최우수선수(MVP)는 정조국(광주FC)으로 굳어지는 분위기다. 그렇다면 영플레이어상의 주인공은 누가 될까.

K리그 클래식(1부리그)이 종착역을 향해 가고 있다. 이제 팀당 4경기씩 남았을 뿐이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시즌 종료 후 한 해 동안 최고의 활약을 펼친 MVP와 영플레이어상 수상자를 선정해 시상한다. MVP 경쟁에선 18골을 기록 중인 정조국이 가장 앞서있다. FC서울 아드리انو(14골)를 4골차로 따돌리고 있는 정조국은 12개 구단 선수들 가운데 단연 돋보이는 활약을 펼친 데다, ‘강등권 후보’로 꼽혔던 팀을 중위권으로 도약시켜 유력한 MVP 후보로 손색없다. 한동안 긴 슬럼프를 겪었다는 스톱리드 빼놓을 수 없는 플러스 요인이다.

반면 23세 이하 프로 3년차 이내 선수들을 대상으로 하는 영플레이어상에선 뚜렷한 후보가 보이질 않는다. 지난해 이

맘때는 영플레이어상 수상자가 누가 될 것인지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이재성(전북현대), 황의조(성남FC), 권창훈(수원삼성) 등 새로운 ‘K리그 영건’들의 싸움이 불 만했다. 최종 수상의 영광은 이재성에게로 돌아갔지만, 황의조와 권창훈도 상을 받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었다. 그러나 올해는 지난해와 같은 ‘대어급’ 영플레이어가 눈에 띄지 않는다.

자격요건 중 하나인 ‘전체 경기수(19일 현재 34경기)의 50% 이상 출전’을 충족하는 선수 중 눈에 띄는 후보는 울산현대 김승준(28경기·7골2도움), 제주 유나이티드 안현범(24경기 5골4도움), 전남 드래곤즈 허용준(24경기·4골2도움), 인천 유나이티드 송시우(25경기·5골1도움) 등이다. 시즌 중반까지 첫 골키퍼 수상이 될 것이란 기대를 모았던 성남 김동준(22경기·30실점)도 있지만, 후반 기 들어 주춤하며 경쟁에서 밀려났다. 팀 공헌도와 개인기록 등을 종합할 때 김승준과 안현범이 양강구도를 형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김도현 기자 dohoney@donga.com

3개국어 능숙한 인터뷰…더 진화한 ‘손흥민 클래스’

(영어·독일어·한국어)

통신원 리포트

431일만에 독일 레버쿠젠 방문
경기 비겼지만 인터뷰 대상 1호
옛 팬들 आयु에도 의연하게 대처

정확히 431일이다. 손흥민(24·토트넘)이 레버쿠젠의 홈구장 바이 아레나 그라운드를 다시 밟기까지 걸린 시간이다. 지난해 8월 호펜하임과의 독일 분데스리가 2015~2016시즌 개막전 이후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으로 갑작스레 이적했던 손흥민이 1년 2개월여 만에 처음으로 친정팀을 방문했다. 그는 토트넘의 승리를 위해 다시 레버쿠젠 땅을 밟았고, 그 때보다 더 성장해 있었다.

사실 독일은 손흥민에게 의미가 큰 나라다. 2008년 대한축구협회의 우수선수 해외유학 프로젝트에 선발된 장학생 신분으로 함부르크에 입단했다. 그곳에서 기초를 닦고 닦은 손흥민은 2012~2013시즌 12골을 터트리며 주목을 받았다. 레버쿠젠에선 2013~2014시즌 12골, 2014~2015시즌 17골을 뽑으며 에이스로 부상했다. EPL에 발을 디딘 2015~2016시즌에는 활약이 미미했지만, 올 시즌에는 5골·2도움으로 단연 돋보이는 가운데 아시아 선수 최초로 EPL ‘이 달의 선수(9월)’까지 거머쥐었다.

19일(한국시간) 2016~2017시즌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32강 조별리그 E조 3차전 레버쿠젠 원정경기는 손흥민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지표와 같았다. 0-0으로 비긴 이날 경기 전부터 그와 관련된 보도는 끊임이 없었고, 경기 후에는 인터뷰 대상 1호가 됐다. 지난 시즌 라지초(이탈리아)와의 챔피언스리그 플레이오프 때도 독일 언론은 레버쿠젠의 본진 진출보다 손흥민의



토트넘 손흥민(앞)이 19일(한국시간) 바이 아레나에서 벌어진 친정팀 레버쿠젠과의 2016~2017시즌 UEFA 챔피언스리그 E조 3차전 원정경기 도중 옛 동료 라스 벤틀러와 볼을 두고 있다.

이적 관련 보도에 열을 올린 바 있다.

손흥민은 이날 레버쿠젠전을 마친 뒤 양 팀 선수들과 감독을 통틀어 가장 많은 인터뷰를 했고 영어, 독일어, 한국어를 가리지 않고 모든 질문에 능수능란하게 답했다. 분야를 불문하고 해외유학에 실패하는 원인 중 하나는 바로 ‘언어 장벽’이다. 게다가 손흥민은 운동과 언어, 두 가지를 모두 소화해야 하기에 더 힘을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그는 언어 장벽을 깨부셨고, 어렵기로 소문난 독일어를 원어민 못지않게 구사한다.

실제로 분데스리가에서 활약하는 동안 손흥민은 인터뷰는 물론 팀 동료들과의 의사소통, 감독과의 전술논의, 훈

련 등에서 전혀 문제가 없었다. 토트넘으로 이적한 뒤에는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해 주위를 놀라게 했다. 이날 그에게 많은 질문이 쏟아진 것도 독일어, 영어, 한국어를 가릴 것 없이 자유자재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인터뷰 도중 옛 동료 베르너 레노(24·레버쿠젠)는 손흥민에게 웃으며 장난을 거는 등 변함없는 우정을 보여줬다. 손흥민 또한 경기 도중 자신을 비난한 레버쿠젠 팬들에게 박수를 보내는 한편 인터뷰 때는 “신경 쓰지 않는다. 그저 오늘 내 플레이에 만족하지 못했다”며 의연하게 대처했다.



알 아인(UAE)은 19일(한국시간) AFC 챔피언스리그 준결승 2차전 원정경기에서 엘 자이시(카타르)와 2-2로 비겨 결승행에 성공했다.

드필드의 핵심으로 꼽히는 오마르 압둘라흐만(25)이다. 현재 알 아인의 주장도 맡고 있다. 173cm로 키는 작지만, 스피

아울러 그를 응원하기 위해 오랜만에 바이 아레나를 찾은 한국인들의 행렬도 인상적이었다. ‘손흥민 특수’로 복귀거린 바이 아레나에서 그는 다시 한 번 자신의 이름을 각인시키며 세계적 선수임을 스스로 입증했다.

오늘의 그가 있기까지 비판도, 우여곡절도 많았다. 아직도 가야 할 길은 멀고, 실력도 더 향상시켜야 한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은 다른 노력들도 손흥민은 게을리 하지 않고 있다. 착실하게 스스로의 길을 개척하고 있는 손흥민이 독일과 영국을 넘어 유럽 전역에서 사랑받는 특급 스타로 도약하길 기대해본다.

레버쿠젠(독일) | 윤영선 통신원

ACL 결승 상대는 UAE 강호 ‘알 아인’

엘 자이시 상대 1승1무로 결승행
외인선수 페르난데스 ‘요주 인물’

아랍에미리트(UAE) 알 아인이 2016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결승에 선착했다.

알 아인은 19일(한국시간) 카타르 도하 압둘라 빈 칼리파 경기장에서 벌어진 엘 자이시(카타르)와의 대회 준결승 2차전 원정경기에서 2-2로 비겼다. 지난달 28일 1차전 홈경기에서 3-1로 승리한 알 아인은 1승1무로 결승행 티켓

을 거머쥐었다. 결승은 다음달 19일과 26일 홈&어웨이로 펼쳐진다.

2003년 이 대회에서 우승한 바 있는 알 아인은 2번째 정상 등극을 노린다. 결승 진출은 역대 3번째다. 알 아인은 한국 선수 이명주(26)가 아시아쿼터로 활약하고 있어 국내 팬들에게도 알려진 팀이다. 2015~2016시즌 UAE리그 준우승을 차지했고, 국왕컵에선 정상을 밟았을 정도로 탄탄한 전력을 자랑한다.

알 아인에는 UAE국가대표팀에서 활약하는 선수가 6명 포함돼 있다. 이들 가운데 가장 주목받는 선수는 UAE 미

드와 개인기가 매우 뛰어난 선수로 평평이 나 있다. 알 아인 유니폼을 입고 107경기에 출전해 27골을 뽑았고, A매치에서 54경기 6골을 기록 중이다.

외국인선수는 일본 J리그 가시마 앤틀러스에서 뛰었던 카이오 루카스 페르난데스를 주목할 만하다. 2015~2016시즌 도중 이적한 그는 주로 원어를 맡고 있는데, 알 아인에서 단 8경기만 뛰고도 6골을 넣었다. 페르난데스와 압둘라흐만 모두 결승에 출전해 알 아인의 공격을 이끌 것으로 보인다. 다수의 중동팀들이 외국인선수에게 많이 의존하는 데 반해 알 아인은 조직적 팀플레이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최용석 기자 gtyong@donga.com

이적 후 2승4무8패…대안 못찾아



성남FC의 올 시즌 외국인 공격수 티아고(23·알 힐랄·사진)의 이적 전·후로 나뉜다. 성남은 ‘현대오일뱅크 K리그 클래식 2016’ 초반 티아고의 득점력을 앞세워 승승장구했다. 티아고는 성남에서 13골·5도움을 올리며 공격 첨병의 역할을 제대로 했다. 티아고가 뛰는 동안 성남은 9승5무6패를 기록했다. 특히 시즌 초반 10경기에선 5승3무2패의 호성적으로 3위까지 올라가기도 했다. ‘K리그 시민구단의 자존심’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티아고가 이탈한 뒤로 성남은 ‘날개 잃은 까치’로 전락했다. 티아고는 7월 13일 수원삼성과의 FA컵 8강전 도중 햄스트링 부상을 당한 뒤 더 이

상 K리그 경기에 나서지 못했다. 이어 8월 사우디아라비아 알 와흐다로 이적했으나, 협상에 문제가 생기면서 방향을 틀어 알 힐랄 유니폼을 입었다. 이 과정에서 성남은 약 45억원에 이르는 거액의 이적료를 챙겼다. 구단의 주머니 사정은 한층 풍족해졌다. 그러나 공격 첨병이 빠진 그라운드에서의 공백은 도무지 채워지지 않았다. 티아고의 이적 후 성남은 클래식 14경기에서 고자 2승(4무8패)을 추가하는 데 그쳤다. 순위는 점점 떨어졌고, 김학범(56) 전 감독이 중도 사퇴하기에 이르렀다.

구상범 감독대행이 부랴부랴 지휘봉을 잡고 공격진에 변화를 주는 등 분위기가 전환에 나섰지만, 성남은 여전히 티아고의 빈 자리에서 허전함을 지우지 못하고 있다. 결국 지난해 어렵게 오른 상위 스플릿의 한 자리를 지키지 못한 채 2년 전의 자리로 돌아오고 말았다.

정지욱 기자 stop@donga.com

전남, 노상래 수석코치 2년 계약 연장

전남은 19일 K리그 승강제 시행 이후 처음으로 팀을 상위 스플릿으로 이끈 노상래 수석코치의 공로를 인정해 2년간 계약을 연장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전남 지휘봉을 잡았던 노 수석코치는 내년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진출 시 필요한 P급 지도자 자격증이 없어 최근 송경섭 감독에게 자리를 내주고 수석코치로 내려앉았다.

강원FC 세르징요 위조여권 사용 조사

강원FC는 19일 외국인선수 세르징요가 위조여권 사용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세르징요가 2014년 6월 브라질에서 시리아 국적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브로커를 통해 위조된 여권을 보유하게 된 것으로 보고 있다. 강원은 “사문서 위조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한다”는 경찰청 의사정보과 관계자의 말을 전하며 “구단은 6월 세르징요가 시리아 여권으로 브라질 주재 한국대사관으로부터 정상적으로 비자를 발급받은 뒤 인

한국제공항 입국심사대를 통해 입국한 것을 확인하고 6개월간의 계약에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레스터시티, 챔스리그서 코펜하겐 제압

레스터시티(잉글랜드)가 19일(한국시간) 킹파워 스타디움에서 벌어진 2016~2017시즌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32강 조별리그 G조 3차전 코펜하겐(덴마크)과의 홈경기에서 마레즈의 결승골로 1-0 승리를 거두고 3연승으로 단독선두를 질주했다. 코펜하겐은 1승1무1패(승점 4)로 2위. F조의 레알 마드리드(스페인)는 산티아고 베르나베우에서 열린 레기아 바르샤바(폴란드)와의 홈경기에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의 2여시스트 활약을 앞세워 5-1 대승을 거두고 2승1무(9득점·4실점)로 2위를 달렸다. 적지에서 스포르팅 리스본(포르투갈)을 2-1로 제압한 도르트문트(독일)가 2승1무(10득점·3실점)로 레알 마드리드와 동률을 이뤘으나 득실차에서 앞서 F조 1위를 지켰다.

편진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